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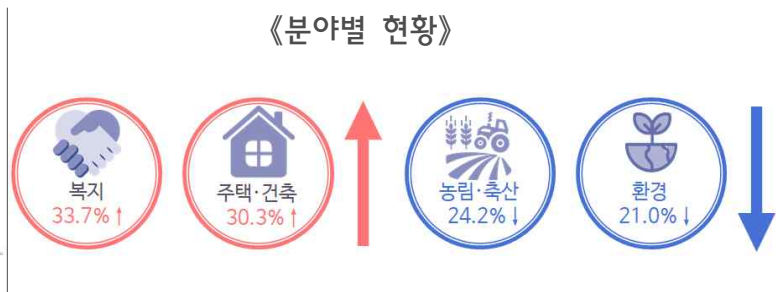
이슈 키워드

온라인 여론			민원		
순위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민원건수	유형
1	소비쿠폰	2,978	불법 주정차	61,065	생활불편
2	이상반응	2,335	매교초 설립	57,444	지역이슈
3	위드코로나	1,451	대야3초 설립	11,522	지역이슈
4	탄소중립	1,277	장애인 전용구역	9,508	생활불편
5	민주노총	1,111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4,953	정책관련
6	종전선언	837	어린이 보호구역	3,808	생활불편
7	인플레이션	746	경기도 교육청	3,522	지역이슈
8	거리두기	671	동탄역 지상공원	3,283	지역이슈
9	누리호	575	경부 직선화	3,228	지역이슈
10	접종률	521	기지이전 부지	2,727	지역이슈

* 민원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로 중·반복 민원 포함(10.18~10.24.) / 온라인 여론 : 문체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뉴스트위터커뮤니티 분석결과(10.14.~10.20.)

민원 동향

- 10월 3주차 민원은 308,950건(일평균 44,135건)으로 지난 주(268,388건) 대비 15.4% 증가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경기(39.8%), 충남(10.6%)이 다소 증가, 부산(4.8%), 제주(3.6%), 충북(1.0%) 등은 감소
- 분야별로는 매교초 설립 요구 등 복지 및 주택·건축 분야가 증가한 반면 농림·축산, 환경 분야 감소



주요 민원

□ 경기도 남양주시 백봉지구 종합병원 유치 요구 (254건)

- 백봉지구 개발 당시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마련하였으나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어 남양주시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민원 발생

※ 관련 민원은 10월2주 대비 10월3주에 21배 증가



〈의료시설 부지 위치도〉



- 남양주시는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땅과 배후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급 종합병원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백봉지구의 종합의료시설 부지가 있음에도 가까운 위치인 왕숙신도시에 또 다시 의료부지계획을 승인한 것은 남양주시 전체 시민을 위한 결정이기 보다는 일부 시민들만을 위한 결정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백봉지구 종합 의료시설 부지의 병원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19. 경기도 남양주시)
- 백봉지구가 병원 유치 실패 요인으로 부지 크기가 작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백봉지구는 상급 종합병원이 들어오기에 결코 작은 크기가 아닙니다. 병원은 근본적으로 병원설립을 통해서 이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건립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익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부디 백봉지구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의 병원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10.19. 경기도 남양주시)

□ 대구시 ○○초등학교 등·하교길 안전대책 마련 요청 (211건)

- 대구시 평리 7구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초등학교 등·하교 길에 인근 공단을 통행하는 대형차들이 많아 안전을 위한 육교 또는 지하로 건설 요구



- 저희는 서대구역 ○○○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평리 뉴타운의 입주가 완료 되면 많은 자녀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등·하교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로 가는길에 ○○공단으로 향하는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중앙펜스 외에는 안전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10.21. 대구광역시)
- **검토요청** 초등학생 자녀들이 등·하교시 사고의 위험이 큼니다. 입주전 ○○초등학교로 가는 길이 위험하지 않고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행정적인 선 조치를 요구 합니다. 육교 건설이나 지하로 건설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20. 대구광역시)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소음 관련 관리·감독 요구 (119건)

-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에서 바람이 부는 날이면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감독 요청

-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아파트는 '21년 2월 입주를 시작하여, 시공사를 통해 각종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8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아파트 소음 문제로 인해 수면을 취할 수 없을 정도를 넘어서 일상 생활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0.20.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물의 구조 이상으로 입주민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면 다른 것에 우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나 시행사나 시공사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에 관리·감독 기관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10.20. 경기도 남양주시)

민원 예보(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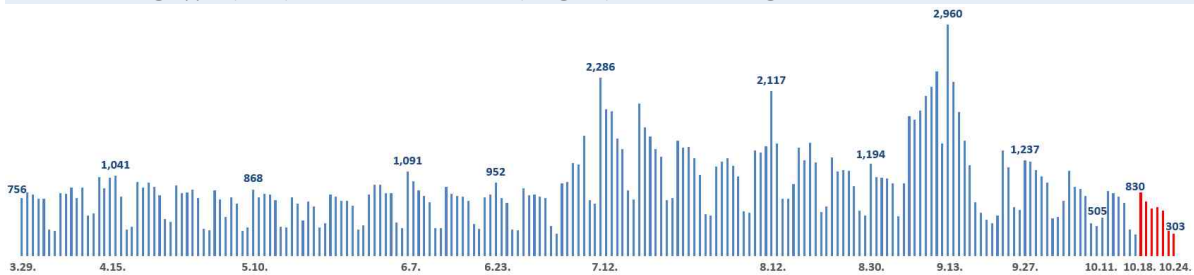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

2020. 2. 12. | 3단계(심각)

보건복지부 등

※ 20.2.21. 예보발령 대상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외 지자체 등 270개 기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 구제 대책 및 어린이 보육, 학생 교육 대책 요구, 감염 방지를 위한 유흥업장 행정조치나 모임 제한 조치 요구,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문의 등의 민원 발생



▶ 이번 주 민원은 4,049건으로 전주(4,302)보다 5.9% 감소, 일평균 578건



□ 전주 대비 상승 키워드

보건소, 자가격리, 부작용, 온라인 등

- [코로나19로 중단된 보건소 업무 재개 문의] 코로나로 인해 몇 달째 보건소에서 산전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타 지역 보건소 중에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1월에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나요? (10.19. 경기도 시흥시 보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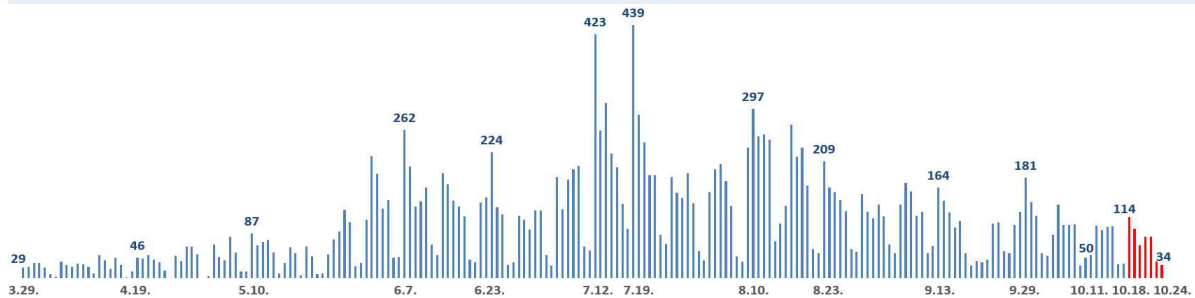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코로나로 인해 1년 넘게 중단되어 있습니다. 11월부터 위드코로나를 시행할 방침인데 아직까지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시행이나 기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 사업과 모자보건 사업 등의 시행 시기와 대책이 궁금합니다. (10.22.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 [검토요청]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기회 요구]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실기 시험을 치른 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 시험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자가격리자는 작업형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험이 컴퓨터로 진행되어 별도의 시험장소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시험 주기가 1년인지 아닌지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이것이 타당한가요? 그리고 필답형 시험의 점수 유예 규정이 없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왜 자가격리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 모두 짊어져야 하나요? (10.22.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 6. 16. | 2단계(주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접종 후 다양한 증상에 대한 궁금증, 백신접종 예약방법, 접종일정, 접종대상 누락 이의, 접종기준에 대한 문의 및 이의 등 민원 발생



▶ 이번 주 민원은 510건으로 지난주(603건)보다 15.4% 감소, 일평균 73건



□ 주요 키워드

부스터샷, 안전성,
접종완료, 방역 정책 등

- [부스터샷 접종 관련 문의] 양센 접종자는 언제 부스터샷을 맞나요? 양센을 접종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 일선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계층인데, 부스터샷 실시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10.19. 질병관리청)
부모님께서 같은 날 1~2차 백신을 맞으셨는데, 고령층 부스터샷 사전예약을 하려고 하니 어머니는 예약이 되는데 연세가 더 많으신 아버지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10.20. 질병관리청)
- [백신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 신고] 학생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러 가는 날 학교 앞에 출처가 불분명한 단체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말라며 종이를 나눠주는 등 선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면대면으로 선동을 시작한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허위 사실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10.22. 보건복지부)
- [백신 패스 도입 반대] 가족이 백신 1차 접종 후 부작용으로 2주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아 백신 접종 여부는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고 하면서,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만 예매가 가능한 행사를 하며 차별을 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백신 패스를 용인한다면 부작용이 나든 말든 무조건 맞으라는 강제가 아니고 됩니까? (10.20. 한국문화재단)
- [확진자 백신 접종 문의]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백신 접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생활 치료센터 간호사는 보건소에 문의하라고 하고, 보건소 직원은 앞뒤 설명 없이 빨리 예약 해서 접종받으라고만 합니다. 확진자의 백신 접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10.20. 질병관리청)

알림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3P	대구시 OO초등학교 등·하교길 안전대책 마련 요청	1AA-2110-0848571	대구광역시
4P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기회 요구	1AA-2110-0937938	한국산업인력공단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